



주 제:	“회개하지 않으면...”	“사순 제 3주일” (다해)	2007년 3월 11일
복음 묵상:	루카 13,1-9	탈출 3,1-8 궤. 13-15	탈출 3,1-8 궤. 13-15

이제 우리는 남의 탓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 중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이웃 형제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지기에 회개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부터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웃 형제들을 다치게 하는 원인을 제공 할 것이며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절제와 기도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실천해 나가면서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 함형식 신부님 강론에서)

일요 기도회	매주 일요일 11:30 레지오 방에서	2007년 3월 4 (일요일)
진행: 박 소피아	음악: 박 어거스틴	참가 가족: 12명
복음 묵상: 필립 3,17-4,1	공동찬미: 시편 27 편	

예언 말씀:

- * 늘 기뻐 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 * 일어나 가라.
- * 눈동자처럼 너를 지켜 주시고 나 너희와 함께 있다.
- * 두려워 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 *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출석: 강 글라라, 조 헬레나, 박 소피아, 권 요한, 우 안젤라, 박수잔나, 박 어거스틴, 서 엘리자벳, 김 아네스, 최카타리나, 박 소피아, 오 세실리아

알림

일요 기도회의 책임 봉사자는 최 북동 카타리나 자매님이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축복 주시기를 청해 주십시오.



“人 生”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고, 출세 하기 싫은 사람 누군고,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군고, 흉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소.

가난 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 들지 마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외다.

가진 것 많다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 큰소리 치지 말고
명예 얻었다 목에 힘주지 마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요.
줄게 있으면 쥐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노. 내 것도 아닌데...

삶도 내 것이라고 하지마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 둔다고 그냥 있겠오.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나가겠소.

-서산대사께서 입적하기 직전 읊은 해탈詩중에서-

수요 기도회	매주 수요일 소성당 7: 30 PM	2007년 3월 7일 (수요일)
진행 : 신 스테파노	음악: 박 어거스틴	참가 가족: 13 명
복음묵상:	루카 5 장 27 절 ~ 32 절	

나눔: 기도회에 상처가 있는 이유와 복음 묵상

- *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께 찬미를 드리는 곳에서 상처가 있는 이유는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인위적으로 겸손해지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이른 바 위선을 행함에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참된 선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 * 흔히들 저질 수 있는 작은 잘못에 의해 상처받기보다는 사회에서 가져온 작은 작대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흔히들 기도회에 와서 내적 치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치유의 본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 *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소상히 말하듯이 주님께 먼저 자신의 문제점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한없는 은총을 주십니다.
- * 사순절은 내 상초를 찾아내는 좋은 성찰의 계기, 내적 치유와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과 치유, 토마스 형제님의 보내주신 시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봅시다.
- * 기도회 발전에 대한 의견 - 기도회는 사랑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칠 때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기도회는 그 위에 있어야 발전합니다. 또한 기도회는 배워야 하고 체험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 * 기도회에 바라는 점 - 진행자는 좀 더 많은 준비와 사전에 기도회 가족들에게 진행 방향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언 말씀:

- +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 +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하라.
- + 주님안에서 늘 기뻐하라.

가족 소식:

출석 ; 박 어거스틴, 김 빅토리아, 김 막시밀리안, 이 미카엘라, 정 멜라니아, 신 스테파노, 임 요한나, 박 소피아, 석 레오, 이 아네스, 노 율리아노, 박 세실리아, 권 요셉

수요 공지

1. 석 레오 형제님, 세크라멘토에서 이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박 아가다 자매님이 북가주 성령 기도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박 소피아 자매님이 산호세 성령 기도회 회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박 소피아 회장님의 한 말씀 : 아시다시피 부족하고 약한 하느님의 한 자녀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화합하고 함께하는 기도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4. 다음 주 수요일 모든 기도회 모여 치유 예절이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5)
"If you do not repent, you will all perish as they did!"**

평화 기도회	"주님의 거룩한 변모"	2007년 3월 8일(목요일)
진행: 박 미카엘	음악: 정 버나드, 민바로로	참가 가족: 8 명
복음 묵상: 루가 13,1-9	공동찬미: 시편 103 편	탈출 3,1-15, 1 코린 10,1-6,10-12

나눔:

- * 우리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거룩한 땅'에 함께 설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는 우리들인지라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품에서 잘려 나가지 않고 그 분 안에서 항구히 머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 사랑의 반댓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려 깊지 못한 직설적인 충고나 말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웃의 허물이나 약점을 보았을 때 직설적으로 '충고'하기보단 먼저 침묵 중에 그 이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참된 사랑과 관심을 '바르게' 표명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십사 주님께 청해야 하겠습니다.
- * 복음에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실행이 어려운 주님의 말씀들 (예를 들면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요구들로 느껴져서 오히려 짐이 되고 신앙생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새 계명이나 권고만을 주지 않으시며 그 실행 방법에 대한 실마리와 가능성까지도 함께 보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참 주님이자) '참 인간인 내가 해 냈으니 너희들도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시편과 복음 말씀은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반복해서 들려 줍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내가 지은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회개의 과정에 큰 아픔과 부끄러움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토 1서 말씀에서처럼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우리 능력 이상의 시련을 주지 않으시며 시련을 주실 때는 그것을 이길 힘도 함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함께 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 * 오늘 탈출기에서 모세의 주님 체험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됩니다. 이에 반해 일상 생활 중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심을 그리 깊게 인식하지는 못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자 시간을 내고 봉사하려 노력할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현존과 동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활동 등으로 몸이 많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피곤했던 몸이 기도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 매우 편안해짐을 체험합니다. 아버지께서 품에 안아 주시며 "편히 쉬어라."하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공지 사항:

-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요/평화 기도회 합동으로 기도회와 치유예절을 갖겠습니다.
- 3월 20일 화요일에는 찬미 미사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석자:

박알베르또, 박 미카엘, 이 수산나, 최카타리나, 정버나드, 최베드로, 민 바로로, 김 미카엘라. (8명)

복음 [루가 13,1-9]

